

사회



조선대병원 '치유의 정원' 조선대병원은 설 연휴기간 동안 고향에 가지 못하는 환자와 보호자들을 위해 병원 로비에 편백과 허브 등 80여종의 나무·꽃으로 조성한 '치유의 정원' (Healing Garden)을 19일 설치해 25일까지 휴식공간으로 활용한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교직원 수당 등 부당 인상 지급 감사원, 전남대 총장 징계 요구

감사원이 급여보조성 인건비를 부당하게 인상해 결과적으로 학생들에게 등록금 부담을 안긴 전·현직 국립대 총장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대학재정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립대 5곳은 2006~2010년 기성회계세출액의 23.7% 수준인 연평균 1405억원을 급여보조성 인건비로 지급했다.

특히 전남대는 2009년 기존 2개 수당을 52.7% 인상하고 2010년 경쟁력 제고 성과급 등 2개 수당을 신설해 23억1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지난 2008년 현재의 총장이 취임한 이래 급여보조성 인건비 81억원을 부당 인상했다.

총북대는 '급여 수준을 국립대 최상위 수준으로 향상시켰다'는 전임 총장의 선거 공약을 이행하려고 2010년 2개 수당을 신설해 80억원을 지급하는 등 2년간 급여보조성 인건비 164억원을 부당하게 인상했다. 이 과정에서 교직원이 받는 일부 인건비 항목을 제외한 채 다른 국립대에 비해 총북대의 인건비 수준이 낮은 것처럼 사실과 다른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전남대 현 총장과 총북대 전(前) 총장에 대한 징계를 각각 요구했다.

또 서울대 등 대학 5곳이 회계장부에 기록·관리되지 않는 '부외계좌'로 발전기금과 시설사용료 수입 등을 부당하게 관리한 사실도 적발했다.

/연합뉴스

과도한 스킨십에 즉석 만남까지 10대 '프리허그' 탈선 논란

총장로 수십명씩 몰려다녀 상인들과 마찰도

광주시 동구 총장로를 중심으로 청소년들 사이에 프리허그(Free Hug)가 유행하고 있지만 빛나간 일부 때문에 탈선 우려를 안고 있다.

'포옹을 통해 현대사회에서 지친 심신을 달래고 모두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해주자'라는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일부 청소년들로 인해 탈선의 장으로 바뀌고 있다는 지적이다.

매주 주말이면 광주시 동구 총장로 구 광주우체국 앞에서는 남녀 중고등학생 10여 명이 'Free Hug' '추위, 안아줘' '뽀뽀하고 싶지 않나?' 등의 피켓을 들고 "안아달라"고 외치고 있다.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를 통해 사전에 장소와 시간을 공지하고 본인들의 인증샷(얼굴사진)과 키, 나이 등 소위 스펙을 공개한 터라 이를 보고 찾아오는 남녀 중고등학생도 상당수 있다.

학생들은 사전 공지를 보고 화순과 순창 등지에서도 광주를 찾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분위기가 과열되면 단순한 포옹을 떠나 키스 등 과도한 스킨십으로 이어진다. 또 일부 여성들은 "OO 오빠 멋져요, 사랑해요"를 외쳐, 오빠부대를 연상하게 했고 여성들의 환호소리가 커지면 남학생들은 서로 가위바위보 게임을 통해 장난삼아 옷을 벗기까지 한다.

프리허그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는 일부 학생들은 '즉석 만남'으로 이어져 함께 다른 장소로 향하거나 서로 번호를 교환하기도 한다.

수십여 명의 중고등학생들이 한꺼번에 몰려다녀 인근 상인들과의 마찰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지난 14일에는 노점상과 한 고등학생이 말다툼을 하자 경찰이 출동해 청소년들을 해산시키기도 했다.

노점상 김모(62)씨는 "학생들이 주말만 되면 총창고 시끄럽게 해서 매출이 급감했다"며 "일부 학생들은 상인들이 세워놓은 노점을 쓰러트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프리허그에 참여한 최모(16)군은 "마땅한 놀이 문화가 없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서로가 위로가 돼주고 추억을 만들기 위해 참여했다"며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어른들이 이해가 안된다"고 밝혔다.

광주동부경찰서 황인규 금남지구 대장은 "연말부터 주말이면 청소년들이 총창로 구 광주우체국 인근에 수십 명씩 몰려서 소음과 풍기문란 등을 이유로 주변 상가나 시민들의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전라도 비하' 카페 시정요구에 네이버 '표현의 자유' 이유 거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역감정을 조장한다며 한 인터넷 카페에 내린 시정요구에 네이버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이례적으로 거부해 논란을 빚고 있다.

1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네이버 등에 따르면 방송심의위는 지난 달 6일 열린 통심심의소 위원회에서 네이버 카페 '라도드'에 대해 '시정요구'의 하나인 '이용해자'를 결정했다. 이용해지는 해당 카페의 접근 자체를 막는 조치다.

하지만 네이버는 방송심의위의 결정이 내려진 뒤 한 달이 넘도록 시정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다가 지난 17일에서야 해당 카페에 대해 '비공개 전환'을 결정했다.

인터넷 카페는 비공개로 전환해도 이용자들과 회원들이 전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정보를 올리고 읽을 수 있다.

박경신 위원은 "해당 카페가 광주에서의 학살을 미화하는 등 게시물 대부분이 전라도에 대한 증오를 담고 있다. 카페 자체가 집단모욕, 집단혐오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며 시정요구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네이버는 "해당 카페가 명백하게 위법한 정보를 담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며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39분 해질 17시 48분 달돋이 04시 38분 달질 14시 45분

대체로 흐림
대체로 흐리며 새벽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광주	흐림	4/10°C
목포	흐림	3/9°C
여수	흐림	6/9°C
나주	흐림	2/10°C
완도	흐림	4/10°C
구례	흐림	3/10°C
강진	흐림	4/10°C
해남	흐림	2/10°C
장흥	흐림	2/10°C
순천	흐림	4/11°C
영광	흐림	2/8°C
진도	흐림	4/10°C
전주	흐림	2/9°C
군산	흐림	3/8°C
남원	흐림	0/10°C
홍산도	흐림	5/7°C

〈오전〉 바다: 동해 남부 앞바다, 서해 남부 앞바다, 남해 서부 앞바다
〈오후〉 바다: 서해 남부 앞바다, 남해 서부 앞바다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1(토)	22(일)	23(월)	24(화)	25(수)	26(목)
날씨	☀	☀	☁	☁	☁	☁
최저/최고	1/8	-2/2	-3/0	-4/1	-3/2	-3/3

"2월엔 어선 안전사고 조심하세요"

월중 해양안전사고 최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19일 '2월 해양안전예보'를 통해 2월에는 어선 안전저해사고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2월 발생한 어선의 안전저해사고는 38건으로 월간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심판원의 한 관계자는 "2월 안전저해사고는 주로 페어망 등의 해상 부유물이나 닻줄에 추진기가 걸려 항해 불능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사용한 어망은 반드시 수거하고 해상부유물 추진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07~2011년 2월 발생한 해양사고로는 기관손상 82건, 충돌 48건, 화재 14건, 좌초 14건 등이었다. 충돌 사고는 주로 오전 4~6시대에 남해 해상에서 많이 일어났다.

2월 해양사고의 인명피해는 최근 5년간 모두 118명이며 이 중 사망·실종자는 화물선 충돌사고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연합뉴스

SINCE 1982

난청은 물론 이명까지 -젠 톤-

말 소리가 잘 안들린다구요?

국제보청기

www.kjhr.com

- 노인성 난청에 탁월한 보청기
- 자연스런 소리연출이 가능한 보청기
- 이명 완화에 효과적인 보청기

본점 062-227-9940 | 서울점 02-765-9940 | 순천점 061-752-9940
총창점 062-227-9970 | 목포점 061-262-9200 | 장흥점 080-222-9975

http://www.hankooktea.co.kr

대한민국 차 부문 전통식품 명인지정

한국제다

10만평의 자가농장과 60년의 제다
 100여종의 차 품종
 대한민국 식품 명인 선정
 국제 녹차 품평에서 최우수상 수상
 2009년 식품평에서 1등상(금상) 수상
 LA외 3개국 수출증
 ISO 22000 인증 획득

전 세계로 나가는 아시아나 기내에 엄선된
 名인의 차만 남품
 名節의 高貴한 선물은 名인이 만든 名茶를 권합니다.

친환경 다원
 작심차
 고품질 녹차
 한국제다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동 763-4
 T.222-2902.3973

감농Set | 다담Set | 우전감로 | 감사Set

제품문의 | 광주 차생원 062-224-2902 | 광주 신세계점 062-360-1232 | 광주 롯데점 062-221-1037 | 광주 현대점 062-510-7040 | 목포 차생원 061-281-1002 | 서울 차생원 02-730-2983 | 부산 차생원 051-256-7007~8